



제 2018-168호

중국

## 중국 베이징시 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블록체인 이용한 전자증거의 법적 효력 인정

북경사무소

### ■ 현황

- 중국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한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 법조계에서의 도입이 활발하다는 점임
- 베이징 동청구 법원(北京市东城区人民法院)은 최근 중문재선(中文在线)이 베이징 징둥상무회사(京东商务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공중수신권(중국어명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 사건에서 원고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제출한 전자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 또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사례라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 주요 내용

- 이번 사건에서 원고 중문재선은 "피고 징둥사가 운영하는 징둥웨두(京东阅读) 모바일 APP에서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4개의 문학 작품을 이용허락 없이 유료로 독자에게 제공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이 저작권법에 따라 향유하는 정보수신권을 침해당했으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함



- 피고 징동사는 “중문재선이 주장하는 4개 작품은 이미 비독점적인 정보수신권을 얻는 등 합법적인 이용에 해당하며, 원고의 소송 제기 이후 즉시 해당 작품을 APP에서 삭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함
-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거의 법적 효력에 관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동청구 법원은 “중문재선이 제출한 전자데이터의 생성, 저장 방식과 보존된 내용의 안정성 등에 신뢰가 가며, 그 진실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블록체인으로 채집한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 징동사는 원고에게 11만 위안을 경제적 배상금으로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하지만 피고 징동사는 이에 불복하며 즉시 상소를 제기함

#### ■ 평가

- 중국에서 금년 7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인터넷 법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채집한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는 중국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통하여 저장한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음
- 금년 9월 최고 인민법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사법해석을 공포함. 중국에서 사법해석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 법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의 콘텐츠 기업들은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전자증거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 출처

- 시나망(新浪网)
  - <http://tech.sina.com.cn/roll/2018-10-20/doc-ihmrasqs8603944.shtml>
- 텐센트망(腾讯网)
  - <https://new.qq.com/omn/20181017/20181017A0S13K00>